

[신앙+] 2019년 10월 특별 전교의 달

“세례받고 파견된 이들:
세상 안에서 선교하는 그리스도 교회”

가톨릭 신자로서 여러분은 선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길을 걷다, 버스 정류장에서, 한 번쯤은 들어본 외침, “예수 믿으세요!” 이것이 선교인가요?

시련을 겪고 있는 친구에게 “나와 함께 성당에 나가보지 않을래?”라고 내미는 손이 선교일까요?

“선교로의 부르심은 세례에 뿌리를 둔 부르심이며 모든 세례받은 이에게 선포된 것입니다. 선교는 파견되는 사람과 메시지를 받는 사람 모두에게서 회심을 가져오도록 ‘파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 자체가 선교인 것입니다!”(2018년 6월 1일 교황청전교기구 지부장 대상 프란치스코 교황 연설 중)



프란치스코 교황은 공허하게 울려 퍼지는 말뿐인 선교를 넘어, ‘삶 자체’로 드러내야 할 우리의 선교 사명을 강조합니다. 또한 이러한 선교로의 부르심은 세례받은 모든 이에게 선포된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교황은 나아가, 선교로 부르심 받은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신원을 돌아보고, 선교와 복음화에 대한 열정을 재발견하기 위해 다가오는 10월을 ‘특별 전교의 달’로 선포했습니다. 주제는 “세례받고 파견된 이들: 세상 안에서 선교하는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특별히 베네딕토 15세 교황의 선교방법론에 관한 회칙 『가장 위대한 임무』 반포 100주년을 기념해 선포되었습니다.

이 ‘특별 전교의 달’을 충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프란치스코 교황은 신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길을 제시합니다.

- ▣ 성체 성사, 복음 말씀, 개인·공동체 기도를 통해 교회 안에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만남 갖기
- ▣ 전세계로 파견되어 선교로 교회를 드러내 온 성인, 순교자, 신앙 고백자들에 대해 나눔 하기
- ▣ 성서, 교리, 영상·신학 공부 등의 선교적 모임 참여
- ▣ 선교적 자선 실천



특히 ‘특별 전교의 달’ 홈페이지에서는 마음, 활동, 나아가 삶 그 자체로 그리스도를 선포해 온 ‘신앙의 증인’들을 선교의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선종 10주기를 맞은 김수환 추기경도 선정되었

습니다. 인간 존엄성에 바탕을 둔 공동선의 추구를 목표로 사회 불평등과 타협하지 않고 민주화를 위해 헌신해 온 그분의 삶, 장애를 지닌 이들, 감옥에 갇힌 이들, 노숙자, 노동자 등 가난하고 소외된 모든 이들의 친구가 되어준 그분의 삶이 진정한 선교의 모범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10월 한 달 동안, 김수환 추기경의 선교적 삶에 대해 묵상하고, 고백하며, 그 모범을 따라 실천하도록 노력해보면 어떨까요? 거창하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 ▣ [비신자와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서도] 식사 전 기도하기
- ▣ 매일 저녁 가족이 함께 기도하기
- ▣ 소원한 시어머님, 장인어른께 전화드리기
- ▣ 한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 만나면 먼저 인사하기

이런 작은 일 중 하나만 시작하면 충분합니다!

“늘 그리스도의 교회와 교감하는 성령과 협력하여 여러분의 사명을 위해 대답하고 용기 있게 행동하십시오!”(프란치스코 교황 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131항 참조)

박민경 이레네 | 서울대교구 홍보위원회



‘특별 전교의 달’ 홈페이지
김수환 추기경 소개 페이지 QR